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WSJ: 어제 연준 새 체제의 핵심 발표 내용?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달러 강세 지속…매파적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 기대감에
- Bloomberg: 워시 연준 의장 데뷔 후 미 국채 금리 반등

[중동 전쟁]
- Bloomberg: 이란 평화 협정 발효되면서 호르무즈 재개에 주목
- CNBC: 트럼프, 이란 협정 양보 논란에 반박

[오일]
- WSJ: 기름값 전쟁 전 수준으로 급락, 휘발유 4불 아래로
- CNBC: OPEC 사무총장, IEA의 석유 공급 과잉 전망 반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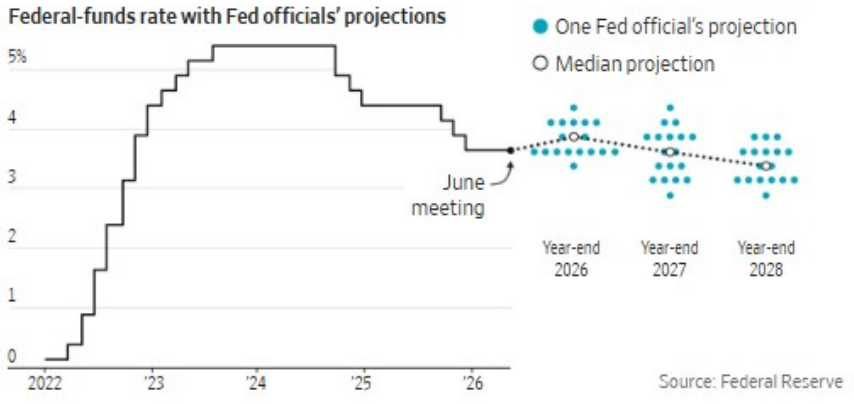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Bloomberg: Waymo, 고속도로 공사 구역 오작동으로 로보택시 리콜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WSJ: Five Takeaways From Kevin Warsh's First Meeting as Fed Chairman
어제 연준 새 체제의 핵심 발표 내용은?

-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 체제에서 처음 열린 정례 회의에서 9명의 참가자들이 올해 최소 1회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. 이날 정책 설명서는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.
- 그리고 5개 분야인 재무제표, 고용 물가 등을 검토할 테스크 포스를 신설했고 '매번 정례 회의 후 의장의 기자회견' 관행의 폐지도 시사했다.
- 정책 성명서의 내용도 대폭 축소했으며 이번에 만장일치의 합의를 도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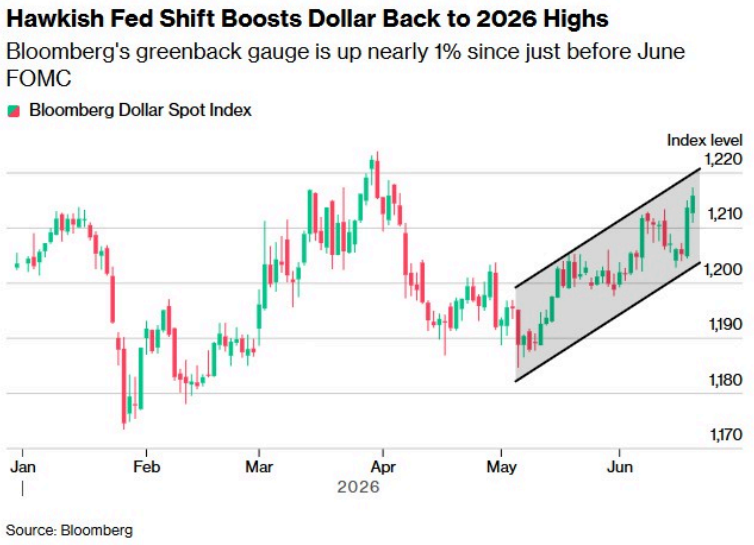
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Dollar Rally Builds as Hawkish Fed Meeting Stokes Rate-Hike Bets
달러 강세 지속...매파적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 기대감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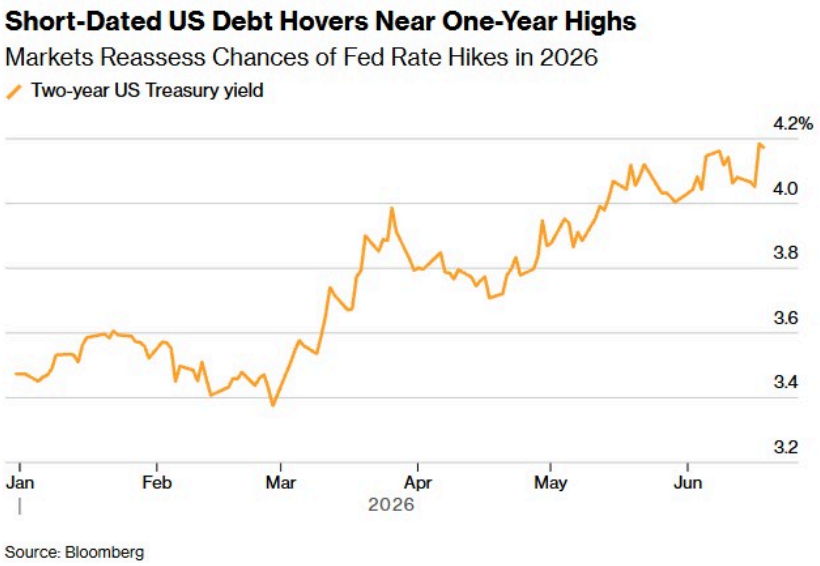
- 미국이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가치가 계속 치솟고 있다.
- 달러 가치가 며칠 만에 1% 넘게 뛰어오르자, 전 세계 투자자들은 돈을 미국 자산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다.
-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중앙은행의 발표가 "누가 봐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였으며, 달러 가치를 올리는 확실한 호재였다"고 평가했다.



기사

Bloomberg: US Treasuries Rebound After Warsh's Debut at Fed Stoked Selloff
워시 연준 의장 데뷔 후 미 국채 금리 반등

-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물가 안정 의지를 보이자 폭락하던 국채 가격이 회복됐다.
- 금리 인상 기대감에 최고치를 찍었던 2년물 금리는 목요일 4.19%로 안정됐고, 장기 물가가 잡힐 거란 믿음에 30년물 금리는 0.05% 포인트내린 4.88%로 가격이 올랐다.
- 일부 전문가들은 "물가를 잡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확고해 장·단기 금리 차이가 좁혀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"며, 이번 발표가 "트럼프가 원했던 금리 인하 방향은 아니었지만, 연준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워지려는 모습을 보여줬다"고 평가했다.

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Trump's Iran Deal Kicks In as Focus Shifts to Hormuz Flows
이란 평화 협정 발효되면서 호르무즈 재개에 주목

- 트럼프가 이란과 맺은 임시 평화 협정이 발효되기 시작했다. 이제 시장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 재개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60일간의 복잡한 협상 기간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.
- 트럼프는 어제 요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마무리에 이란과의 양해각서(MOU)에 서명했다.
- 서명식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블랙스톤 CEO 등 세계 정·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박수를 보냈다. 이란 대통령도 이 협정이 '역사적인 문서'라고 평가했다.

기사

CNBC: Trump hits back at critics as Iran peace deal fuels debate over U.S. concessions
트럼프, 이란 협정 양보 논란에 반박

- 경제 및 에너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임시 평화 협정이 이란 쪽에 더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분석했다.
-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(MOU)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60일 동안 최종 합의를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.
-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고 기름값을 낮추길 바란다며 비판에 반박했다.

기사

[오일]

WSJ: Oil Is Now Close to Prewar Prices, Pushing Gasoline Below $4
기름값 전쟁 전 수준으로 급락, 휘발유 4불 아래로

-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임시 협정에 서명하면서, 미국 증시는 반등하고 국제 유가는 폭락하고 있다.
-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약 72.50달러 선까지 거의 근접하게 떨어졌다. 유가 급락 덕분에 미국인들의 기름값 부담도 줄었다.
- 미국 자동차협회(AAA)에 따르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 밑으로 내려갔다.

기사

CNBC: OPEC chief dismisses IEA supply glut forecast as ‘critical’ Strait of Hormuz reopens
OPEC 사무총장, IEA의 석유 공급 과잉 전망 반박

-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임박한 가운데, OPEC의 사무총장은 어제 수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‘2027년 석유 시장에 심각한 공급 과잉이 닥칠 것’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(IEA)의 최근 보고서 내용을 일축했다.
- 그는 "OPEC을 비롯한 전 세계 다른 기관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시장 상황을, 대체 IEA 혼자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?"라며 IEA의 예측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.

기사

Bloomberg: Waymo Recalls Robotaxis Over Driving Through Freeway Work Zones
Waymo, 고속도로 공사 구역 오작동으로 로보택시 리콜

- 웨이모가 고속도로 공사 구역에 소프트웨어 오류를 보였던 로보택시의 리콜을 진행한다.
- 자율주행 차량이 피닉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사 구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, 현재 수정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.
- 웨이모는 지난 5월부터 고속도로 운행을 중단하고 자발적 리콜을 신고했으며, 이 오류로 인한 충돌이나 부상자는 없었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1,638.30	+145.1	+0.28%
US 500	7,495.20	+75.1	+1.01%
Dow Jones	51,628.62	+136.07	+0.26%
S&P 500	7,494.98	+74.88	+1.01%
Nasdaq	26,399.77	+378.12	+1.45%
S&P 500 VIX	16.74	-1.69	-9.17%
Dollar Index	100.582	+0.716	+0.72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5/32	4.900	-0.033
10-Year Note	4.375	4/32	4.448	-0.052
7-Year Note	4.25	3/32	4.323	-0.052
5-Year Note	4.125	2/32	4.219	-0.053
3-Year Note	4.125	1/32	4.177	-0.039
2-Year Note	4	1/32	4.168	-0.027
1-Year Bill	0	0/32	3.973	-0.013
6-Month Bill	0	0/32	3.890	-0.012
3-Month Bill	0	0/32	3.749	-0.012
1-Month Bill	0	0/32	3.643	-0.017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